물가상승에 실버타운 식당·목욕탕 요금 오른다

이용료 2000원→3000원으로 3년만에 인상

광주시의회, 3월 임시회서 인상 조례안 심의

빛고을 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내 식당과 목욕탕 이용료 인상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 제출됐다.

광주시는 식재료비 등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구내식당과 목욕탕 운영비가 증가한 점을 감안, 두 실버타운 식당과 목욕탕 이용료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두 시설의 요금 인상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이다.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노인복지관의 식당 이용료가 4000원 대에 달한 점도 넉넉히 고려됐다. 하루 이용자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이 2000명 안팎, 효령노인복지타운이 1000명 수준이다. 단, 물리치료실과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종전과 같다.

이번 조례안은 또한 두 노인여가시설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다목적 체육관과 탁구장 사용료에 한해 월권제(월 1만5000원)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12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고,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월권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임대료 지원·역량 강화 사업' 광주 북구, 청년 취·창업 지원

광주 북구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취·창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북구는 창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에는 청년 창업자 50여 명을 선정, 월 30만 원씩 6개월 간 사업장 최대 18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주민 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북구인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가 대상이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북구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구청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접수해도 된다.

또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 활동 참여,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북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 13억여 원을 들여 청년 240명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개월 단기과정 도전 프로그램으로는 밀착상담,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이 있고 5개월 중장기 과정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참여자 중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취업도 돕는다.

참여 자격은 광주에 주소를 두고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이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고용노동부 '워크넷'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각종 자격증 응시료 지원', 아이디어 팩토리 창업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취·창업부터 문화·주거 분야까지 촘촘하고 포괄적인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선옥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주암댐 가뭄상황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가(왼쪽 두 번째) 11일 오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주암댐을 방문, 한국수자원공사 김창준 주암댐 지사장으로부터 주암댐 시설과 가뭄현황, 가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국내외 청년과 함께 '전남 섬' 가치 세계에 알린다

올해 4개 이상 섬에서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개최

전남도는 섬에서 국내외 청년이 주민과 함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전남 섬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총 32개국 209명의 국내외 청년을 선발해 전남 섬에서 18회에 걸쳐 해안 쓰레기 정화 활동, 마을 경관 가꾸기,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펼쳤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워크캠프는 서로 다른 문화권 청년이 모여 1~3주간 함께 생활하며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캠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마을 재건을 위한 평화운동으로 시작해 국제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오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워크캠프 프로그램 운영단체로 선정된 '국제워크캠프기구'와 함께 총 100여 명의 국내외 청년을 선발하고, 외국인 참가 비율을 50명 이상으로 늘려 총 4개 이상의 전남 섬에서 워크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주제로 다양한 섬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여수세계섬박람회 부 행사장인 여수 개도와 금오도·안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신안 비금도와 도초도를 거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워크캠프 개최 홍보와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제워크캠프기구 누리집(www.workcamp.org)에서 4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원봉사여행에 관심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3년간 국제워크캠프는 국내외 청년과 섬 주민 문화교류를 통해 전남 섬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기회였다"며 "국내외 청년과 섬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시, 시민 체험양봉장 참가자 180명 모집나서

4~7월 양봉 교육·채밀 체험

광주시는 2023 시민 체험양봉장 운영 사업 참가자를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양봉체험을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접수한 뒤 추첨을 통해 180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체험양봉장은 양봉 관련 체험과 벌에 대한 생태를 관찰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시민체감브랜드 사업 중 하나다.

체험 신청자는 세대당 1군(벌통 1통)씩 대여받는다. 대여 비용 20만 원 중 시 보조금 10만 원을 제외한 10만 원을 납입한 뒤 4월부터 채밀이 완료되는 7월까지 매주 토요일 정기체험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 임대된 벌통과 사양 관리 등은 농업기술센터 꿀벌연구회가 주관한다. 벌통에서 생산된 양봉산물은 신청자에게 1인 당 7㎏을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자연 속 양봉체험을 통해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꿀벌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광주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광주 역사민속박물관대학, 영산강 역사·문화 조명나서

선착순 80명 접수…오는 30일부터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30일부터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제28기 박물관대학 강좌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5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마한유적체험관은 지역 마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창동 유적에 개관한 문화시설이다.

올해는 '영산강에서 만나는 남도 역사·문화'라는 주제로, 영산강을 따라 형성된 남도의 역사·민속·문학·생태환경 등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문화자원으로의 영산강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강좌는 8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바다로 통하는 길-영산강의 대외교류' '영산강의 수운과 경관변화' '강을 따라 흐르는 설화와 전설' '소통의 공간, 영산강의 뱃길과 장시'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를 마친 뒤 경남 창녕군 일대 낙동강 문화유적 답사(참가비 별도)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물관대학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한다. 참가자는 오는 17일부터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80명을 접수한다.

최경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이번 강좌가 시민들이 영산강이 가진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